겨울여행은 담양으로

'담양산타축제' 개막

14일부터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서

담양군이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에서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제2회 담양산타축제'를 개최한다.

담양산타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개최되는 행사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담양만의 특색 있는 크리스마스 아이템 개발 및 판매로 크리스마스 마켓도시로 운영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통해 겨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올해 담양산타축제는 담양의 서정성을 담은 야간 경관조명과 포토존에 중점을 두고 원도심 중앙공원에는 트리 및 대나무조명터널 등 크리스마스 정원을 조성하고, 메타프로방스는 진입로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6m 높이의 대형 산타, 트리경관 터널 등 동화 속 풍경을 연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축제기간 캐롤 버스킹, 캐릭터퍼레이드, 하늘에서 선물이 내리면, 녹색산타 이벤트, 담빛라디오스타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로 즐거움을 더하고 겨울간식, 크리스마스소품, 공예품 등 크리스마스 관련 추억체험부스를 운영해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연인, 가족 관광객 모두에게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원도심 해동주조장 일원에서는 7080음악다방, 빛의 정원 야외전시, 비주얼 아트 등 '해동 빛의 정원' 행사와 담주다미답예술구에서는 청년 상인과 함께하는 '담빛사이클링' 행사를 진행해 산타축제를 보기 위해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담양전체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산타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담양산타축제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여행하기 좋은 담양'이라는 새로운 겨울관광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 남산공원 조성방법은?' 20일부터 시민 여론조사

여수시는 남산공원 조성 방법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를 오는 20일부터 3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산공원을 도심 근린공원으로 조성할지, 관광형 공원으로 조성할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수 예암산에 조성하는 남산공원은 원도심권과 함께 돌산공원, 장군도, 경도 등 여수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로 꼽힌다.

지리적 조건이 우수한 만큼 타워 등을 조성해 관광 시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미 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일 여수시 문화원에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을 초청해 남산공원 조성방안 공청회도 진행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두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도심 근린공원 방식을 주장하는 측은 명상숲, 야외미술 전시장, 산책로 등 시민들을 위한 공원 기능을 강조한다.

이 경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시가 직접 조성하기 때문에 공원관리 등 공공기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즉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시 재정이 투입되고, 공원시설이 단조로운 점, 부지여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관광형 공원을 주장하는 측은 타워와 같은 유희시설과 관광복합 상업시설을 설치해 남산공원을 관광명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없는데다 관광 시설화에 따라 일자리 가 만들어지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민간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의 공공성 저하, 대규모 관광객 유입으로 교통·주차 불편 우려, 환경훼손, 특혜시비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언급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토요민속여행, 문체부 '한국 관광의 별' 선정

진도군은 진도토요민속여행이 한국 관광의 별 전통자원 분야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현장방문 실사와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진도토요민속여행을 한국관광의 별 전통자원 부문에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0년부터 지역의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한국관광의 별 선정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진도 토요민속여행은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1997년부터 22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향토문화회관에서 진도 전통 민속민요, 무형문화재, 유명 국악인 초청공연, 진도아리랑을 알리는 다양한 기획공연 등 우수한 무형문화 자산을 상설 공연으로 신명나게 펼쳐 34만 여명이 관람했다.

특히 보기만 하는 공연에서 벗어나 '진도아리랑 따라 부르기', '강강술래 함께하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광객들이 민속·민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군은 국가무형문화재 4종(강강술래·남도들노래·씻김굿·다시래기)과 전남도 지정문화재 6종(진도북놀이·진도만가·남도잡가·소포 걸군농악·닻배노래·진도홍주)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배섬 진도'로 불리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속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됐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강진군은 오는 14일 강진군청에서 윤영기 (유)강진교통 대표와 '강진군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1월부터 1,000원으로 어디든 갈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강진군 지역 내 거리에 상관없이 강진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일요금제는 강진군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탑승하여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관내에서 탑승하여 관외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1㎞ 초과 시 ㎞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6,500원까지 부담했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같은 구간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군민 및 강진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준공

화순군은 화순읍 중심지인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였다.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완료되었으며, 연면적 755㎡으로 지상3층 규모이며 광산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시설, 휴게시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다목적 전용공간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앞 광장에서 구충곤 군수, 손금주 국회의원, 강순팔 군의회의장, 문행주 도의원, 박재용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익연대 본부 회장, 이상근 광주·전남지부장 및 이원조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전라도 지부장, 관련 진폐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컷팅 순으로 준공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진폐단체로부터 구충곤 군수의 지대한 관심과 의지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오랜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고, 강원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광산진폐권익연대에서는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박재용회장이 임원과 함께 참석했다.

본 행사에 참석한 구충곤 군수는 "화순의 경제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화순군 경제는 나아졌지만 군에서 보답한게 없어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영암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성료

영암군어린이집 연합회(회장 문철호)는 지난 7일 영암군 군민회관에서 2018년 영암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영암군 관내 41개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 해 동안 각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토의하여 내년 진행 프로그램 진행 계획을 계획하는 시간과 문화행사를 통해 한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불어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영암군수 전동평은 인사말을 통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새싹부터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듯, 우리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애 첫 교육인 보육이 중요하다."며 "어린이집에서는 오는 2019년 새해에도 우리아이들이 밝고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도 어린이집 환경개선, 차량운영비 지원 등 보육교직원 여러분들이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육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에는 현재 4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30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